

상처입은 교사 마음 보듬는다

전북교육청, 13일까지 ‘교육활동 보호문화 축제’ 진행
10·12일 전주교대서 교원 마음치유 지원 프로그램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9~13일 ‘2024 교육활동 보호문화 축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교원 마음 치유 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교육활동 보호 주 제강연, 이심전심(心心傳心) 힐링 토크콘서트, 영화공감 휴(休)프로그램, 교육활동 보호문화 확산 캠페인 등으

로 운영된다. 이에 따르면 특별 프로그램인 교원 마음 치유 지원 프로그램은 10일과 12일 전주교육대학교 황학당에서 열린다. 이 프로그램은 교원들이 교육활동 중 겪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진단하고, 맞춤형 심리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써 교원의 정서적 회복과 자기성찰을 통한 회복탄력성 향상을 목표로 마련됐다. 프로그램에는 교원침해 피해 교원, 교육활동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를 비롯해 교육활동으로 소진을 경험한 교사 45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사전에 실시된 심리검사를 통해 참여 교원의 심리 상태를 진단하며,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심리처방진인 내 마음 보고서를 제작한다. 보고서는 약 110쪽 분량의 개별 맞춤

형 자료로 프로그램 당일 교사들에게 배부된다. 이어지는 해설 강의에서는 심리검사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성찰을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활용 방법을 제공한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원 마음치유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교원침해나 직무스트레스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원들이 치유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원의 심리적 안정망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제3기 전북학생의회 의원 신청하세요”

전북교육청, 50명 모집
초등 5~고교 2학년 대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년 제3기 전북학생의회 신규 학생의원 50명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북학생의회는 추천형 의원 10명, 추천형 의원 40명 등 총 50명으로 구성·운영된다. 추천형 의원(유형1)은 도내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의 재학생(초5~고2)으로 학생이 지원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학교에 제출, 학교는 18일까지 전북교육청으로 접수한다.

이후 오는 26일 학생의원 구성 준비위원회가 포스트별 공개 추첨을 통해 1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추천형 의원(유형2)은 초5~고2를 대상으로 하며, 학교가 학교 대표 1인을 31일까지 교육지원청에 추천서를 제출하면 교육지원청은 자체 계획에 따라 배정 의원 외에 맞게 선출해 교육청에 추천하면 된다.

김지유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전북학생의회는 학생들이 직접 교육정책에 참여하는 공식 창구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다양한 학교급의 학생들이 협력하며 교육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리더십과 협업 능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민주시민교육 교육학습공동체 성과 공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0일 전주교육대학교 교사교육센터에서 ‘2024 민주시민교육 교육학습공동체 성과공유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 민주시민, 평화통일, 환경 등 다양한 주제로 교사들의 교육 실천 사례를 공유한다. 특히 교육과정과 연계된 수업사례를 나누며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계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실천력을 높이교자 마련됐다. 성과공유회는 민주시민교육 교사연구회와 환경교육 학생 중심 동아리 등 총 54개 팀이 참여해 분야별로 자유토론을 벌인다. 이를 통해 전북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실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다양한 협업 과제 및 우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발굴·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지유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이번 성과공유회는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는 교사들의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확산해 학생들이 바른 시민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9일 오전 전북대학교 일림의 거리 일원에서 양오봉 전북대 총장과 교직원들이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1Kg씩 모두 1,300포의 쌀을 나눠줬다.

전북대, 쌀 소비 촉진 위해 학생들에 무료로 쌀 나눠

‘전원의 아침밥’ 과 연계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쌀 소비 촉진을 위해 학생에 무료 쌀 나눔 행사를 가졌다. 9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일림의 거리 일원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1Kg씩 모두 1,300포의 쌀을 나눠줬다. 이번 행사는 ‘전원의 아침밥’ 사업과 연계해 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쌀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북농협 등이 후원했다. 행사에는 양오봉 총장을 비롯해 김종석 학생처장, 노원업 학생부처장, 학생자치기구 임원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쌀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학생들에게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쌀을 건네받은 한 학생은 “전원의 아침밥 덕분에 든든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 만족감이 높았는데, 이렇

게 학생과 지역을 위해 대학이 적극 나서는 것 같아 따뜻함을 느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양오봉 총장은 “쌀 나눔 행사는 전원의 아침밥과 연계해 학생들에게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게 하고, 동시에 쌀 소비도 촉진도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완산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 10주년 기념행사

우수급식소 시상식 등 진행
“내년은 급식 전반에 걸친 안전관리 지원 지속 추진”

전주시 완산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개소 1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가졌다. 9일 전주대학교에 따르면 산하협력단이 위탁 운영하는 완산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유아의 급식환경개선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2014년 12월 개소했다. 이후 어린이뿐만 아니라 아동 및 청소년시설, 노인 및 장애인시설 등으로 급식관리지원의 범위를 확대해 10년 동안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어왔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일 전주대학교 JJ아트홀에서 진행됐다. 1부 순서에서는 어린이들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박진배 총장의 환영사, 식생활안전관리원 최상도 원장의 축하 및 송성욱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이성운 국회의원, 우범기 전주시장, 남관우 전



전주시 완산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개소 10주년을 맞아 지난 6일 전주대학교 JJ아트홀에서 기념행사를 가졌다. <사진=전주대학교 제공>

주시의회의장이 보내온 축하 영상으로 진행됐다. 2부에서는 급식 관리 수준 향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우수급식소 시상 및 전주시 어린이 지역급식 문화 발전을 위해 앞장서 온 어린이급식소 연합회장단 및 운영위원에게 공로상이 수여됐다. 차경희 센터장은 “어린이·청소년 급식관리 지원 운영과 더불어 2025년은 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 업무 확장

을 통해 노인·장애인 등 급식 전반에 걸친 안전관리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대가 위탁운영하는 전주시 완산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급식소와 50인 미만의 소규모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국립군산대 RIS에너지신산업단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워크숍’

국립군산대학교 RIS에너지신산업사업단은 최근 새만금신재생에너지포럼과 함께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워크숍(2024년도 현장견학(선진지) 및 교류회(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 특별자치도 내 해상풍력 단지 조성을 위한 기술, 장비

등의 벤치마킹과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사단법인 새만금신재생에너지포럼,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과 함께 열었다. 워크숍에는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개발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인 (재)녹색에너지연구원과, 신안군청,

전남 풍력산업 협회, 전남개발공사, ㈜대하를 비롯한 전남지역 기관 및 기업과 군산시청, (재)전북테크노파크, ㈜에드베트, (주)테이스워드 군산지역 지자체 및 기업 등 지·산·학·연 관계자 36명이 참석해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산=이재춘 기자

정양 시인의 문학세계 조명

우석대, 13일 학술세미나 개최



정양 시인(우석대학교 문예창작학과 명예교수·사진)의 문학세계를 조명하는 학술세미나가 오는 13일 오후 2시 우석대학교 문화관 5층 화상회의실에서 열린다. 이에 따르면 이날 세미나에서는 문신 문예창작학과장이 ‘정양의 시 세계’를 분석하고, 최명표 문학평론가가 ‘정양의 비평세계’를 발표하며, 정철성 문학평론가가 ‘정양과 전북 문단’을 살펴본다. 9일 우석대에 따르면 정양의 시는 시대의 모순과 사회의 불의를 날카롭게 풍자하는 한편, 특유의 해학을 바탕으로 장치해 전북인의 내밀한 보편적 정서를 형상화하려

는 고뇌를 시로 풀어냈다. 근래에 이르러 그는 전북 방언을 과감히 활용해 토속적이고 구술적인 세계를 선보이면서 시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그는 ‘세월이 보이는 길’ 등의 평론집에서 지역 작가들에게 비평적 애정을 표했고, 고전작품의 새로운 해석에도 깊은 관심을 쏟았다. 한편 정양 시인은 1942년 김제에서 태어나 김제 죽산고등학교, 전주 신흥고등학교 등에서 교사를 지내다가 1980년 대학에 부임했으며, 지난 2007년 정년퇴직했다. 첫 시집 ‘까마귀떼’를 시작으로 첫 시집 ‘안시랑토 양케’에 이르기까지 여러 권의 시집을 발간한 바 있다. 또한 ‘관소리 더늠의 시학’ 등을 내기도 했다. 이러한 공을 인정받아 모악문학상, 아름다운문학상, 백석문학상, 구산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장은성 기자

도내 3개 학교 ‘IB 후보’ 승인

효문중·회현중·함열여중 등… 올해 총 7개교 후보학교 승인

전주 효문중학교와 군산 회현중학교, 익산 함열여자중학교가 IB 후보학교 승인을 받았다. 9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용북중학교(남원)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IB 후보학교 승인을 받은 이후 전주아중초등학교, 완주 화산중학교, 익산 영만초등학교까지 모두 4개교가 차례로 IB 후보학교 승인을 받았다. 이번엔 3개교가 추가 승인되면서 총 7개교로 늘었다. 전주효문중, 회현중, 함열여자중은 IB 관심학교를 운영하면서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교원의 자발적 연구 활동 △적극적인 타시도 월드스쿨 수업 및 사례 탐구 △IB 연수 참여 등의 활동으로 IB의 교육이념과 학습자상을 실제 교육 활동에 반영·실천할 수 있도록 꾸준히 준비해 왔다. /장은성 기자

콘텐츠 융합 창작·창업 대학지원체계 구축

전주대 창업지원단, 톤스퀘어·네스타일·스모어특과 협약

전주대학교 창업지원단은 지난 5일 스타센터에서 (주)톤스퀘어, (주)네스타일, (주)스모어특과 콘텐츠 융합 창작·창업 대학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주대학교 창업지원단 김상진 단장, (주)톤스퀘어 김규철 이사, (주)네스타일 이재성 본부장, (주)스모어특 환현지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콘텐츠 창작자 발굴·육성을 위한 정보 교류 및 교육 협력 △프로젝트 교육, 육성, 지원 등 창작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 협력 △지역 연계 창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업무 협업 △창작·창업 기업 및 인재 육성 사업 협업 등이다. 이날 협약에 참여한 각 기관·기업은 성공적인 콘텐츠 융합 중심 창작·



창업 대학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특화된 인재를 육성하며, 지역 정주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상진 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주대학교 재학생들이 콘텐츠 분야에서 전문역량을 쌓고 진로를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협력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창작과 창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반려동물학과, 펫로스 상담센터 안녕과 협약

전주대학교 반려동물학과는 지난 6일 펫로스 상담센터 안녕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반려동물과의 이별로 인한 펫로스 증후군 상담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펫로스 증후군 상담 관련 교육과정 개설 △교육과정 지원 및 운영을 위한 공동 협력 △펫로스 상담 분야 연구 교류 및 지식 공유 분야에 대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펫로스 증후군 상담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며, 반려동물 산업의 전



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반려동물학과는 2024학년도 신설 학과로, 반려동물 및 반려식물 연관산업의 지역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동물보건사 등 관련 전문기술을 육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